

#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판사, 전업 작가 되다

## 나로 살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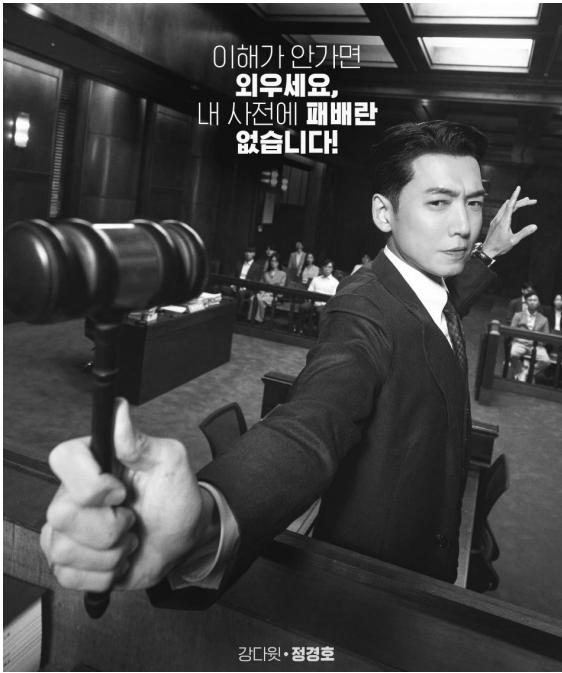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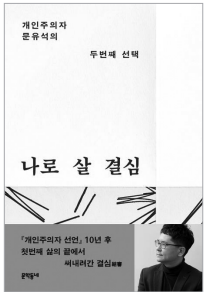
문유석 지음

배우 정경호 주연의 tvN 드라마 ‘프로보노’는 속물 판사가 사고를 친 후 본의 아니게 공익 변호사가 돼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다. 가까운 미래, 전국 민이 참여하는 법정소가 등장하는 ‘악마 판사’, 고아라 주연의 ‘미스 함무라비’ 역시 화제를 모은 법정물이다. 세 편의 법정 드라마를 쓴 주인공은 전직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 정년까지 판사로 일하는 게 인생 목표였던 그는 지난 2020년 법복을 벗고 전업 작가가 됐다.

이미 ‘개인주의자 선언’, ‘최소한의 선의’, ‘쾌락 독서’ 등의 저서를 통해 만만치 않은 글 실력을 보여온 문유석 작가가 전업작가라는 ‘두 번째 삶’을 담은 에세이 ‘나로 살 결심’을 펴냈다. ‘남들의 기대, 시선, 평가가 어떻게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 욕망, 행복을 찾아 살자고 마음 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판사라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시작된 ‘두 번째 선택’은 시행착오와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삶의 대전환을 앞두고 스스로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려고 애썼던 저자는 23년간 판사로 살았던 ‘첫 번째 삶’부터 써내려간다. 그는 자신을 법원 ‘안에서’ 바깥보려했던 ‘나이브한 이상주의’였다고 말한다. “자기 일에 성실한 엘리트집단의 자정 능력을 신뢰했고, 시스템을 신뢰했고,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신뢰했”지만 “사법부는 법의 논리 대신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작동하는 장”이었다. 사법부의 원칙은 힘 앞에 무력했으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글 쓰는 판사’로 정년을 맞고 싶었던 저자는 세월호



23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문유석 작가가 대본을 쓴 tvN 드라마 ‘프로보노’

관련 기고가 원인이 돼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른바 ‘사법농단’을 접하며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저자는 새로운 삶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생전 없던 불면증과 심장 두근거림 현상,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 반강제로 체득되는 겸손함, 내 고가 석자라 생기는 세상일에 대한 무관심, 유튜브 중독, 독서불감증...’ 저자가 전업작가 생활 5년 동안 얻은 것들이다. 스스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슬럼프를 여러번 겪은 저자는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좋은 재판이란 무엇인가’ 고민했던 저자는 이제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한다. 그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끊임없이 부딪치면서 힘겹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장소가 바로 법정이기애 자신이



〈tvN 제공〉

가장 잘 아는 법정드라마를 통해 ‘정의’를 찾아보려한다. “밤마다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끝도 없이 밀려오는 개인파산 사건 기록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읽고 고민하던 동료, 작은 벌금 사건 피고인의 하소연을 미련하리만큼 귀기울여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하려하던 동료”를 기억하는 그는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진 성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타고난 영웅보다는 적당히 이기적이 고 적당히 숙물인 현실적인 인간을 좋아”하기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하려”한다.

그는 “거창한 이념도 집단도 아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아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가 세상을 실질적으로 낫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문학동네·1만7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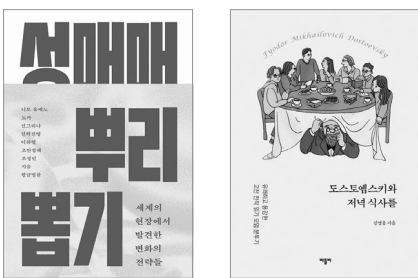
▲마음은 계절을 기억한다(양창순 지음)=정신과 전문의 양창순이 마음을 사계절에 빗대어 불안과 후회, 집착으로 지친 마음을 돌보는 법을 풀어낸다. 오랜 임상 경험과 동양 사유를 바탕으로 상황을 바꾸기보다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에 주목한다. 봄·여름·가을·겨울에 어울리는 마음레시피를 제안하며 생각을 환기하는 연습을 강조하는 심리 에세이.

〈김영사·1만9800원〉

▲로봇과 이별하는 프롬프트(나혜원 지음)=죽은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그를 닮은 로봇을 만들기로 한 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 프로젝트. AI와 로봇이라는 소재를 빌려 상실 앞에서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마음과 기억·감정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진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이별을 받아들이는 성장의 순간을 차분히 담아냈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성매매 뿌리 뽑기(신박진영 외 지음)=성매매 경험 당사자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세계 각국의 현장을 따라가며 성매매를 구조적 여성 성착취의 문제로 짚는다. 합법화 국가의 실패, 성구매 문화, 법과 정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당사자의 목소리와 국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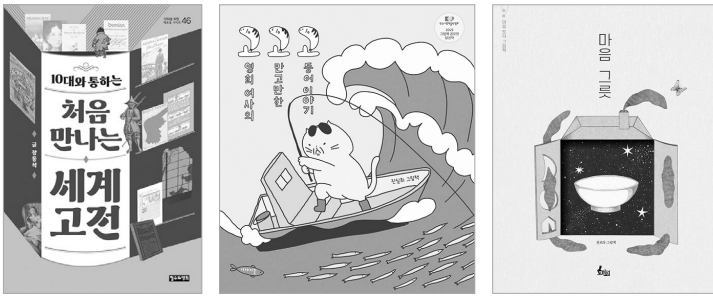


향한 질문과 실천을 제안하는 책이다.  
〈봄알람·2만7000원〉

▲도스토옙스키와 저녁 식사(김영웅 지음)=도스토옙스키 전작 완독을 목표로 모인 13명의 평범한 독서가가 1년 6개월 동안 이어간 독서 모임의 기록이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까지 매달 한 작품을 함께 읽고 식탁에 둘러앉아 나는 솔직한 감상은 고전을 삶의 질문으로 끌어온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읽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취감과 연대가 고전 독서의 또 다른 힘을 보여준다.

〈바들비·1만95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10대와 통하는 처음 만나는 세계 고전(장동석 지음)=‘험릿’, ‘닥터 지바고’,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인간과 사랑, 모험과 과학, 공동체와 평화까지 열 가지 주제로 세계 고전 120편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작품의 줄거리와 핵심 맥락을 짚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읽을 책을 고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고전이 품고 있는 변치 않는 의미와 가치를 통해 현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철수와영희·2만2000원〉

▲고영희 여사의 고만고만한 고등어 이야기(진실희 지음)=전설의 낚시꾼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가 된 고영희 여사는 오늘도 바다에서 ‘기다림’을 낚는

다. 엄청난 입질로 부풀려진 상상 끝에 손에 쏙 들어온 고만고만한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저녁의 온기다. 농친 형운보다 함께 나는 한 끼의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유쾌하고 다정하게 전하는 그림책이다.

〈이야기꽃·1만6800원〉

▲마음 그릇(전보라 지음)=마음의 모양과 감정을 그릇에 빗대 풀어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마음 그릇’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한다. 크기나 모양보다 무엇을 담을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마음 속 집을 내려놓고 소망을 키우는 태도로 이어진다. 종이 깔라주로 표현한 색과 빛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따뜻하게 비춘다.

〈토끼섬·1만8000원〉



#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